

『회색 아이』 독후 활동지



루이스 파레 글 | 구스티 그림 | 남진희 옮김
불광출판사 | 40쪽 | 1-2학년 창작동화
우리아이 인성교육 시리즈 6

“

온몸이 회색으로 태어난 아이 마르틴.
마음도 시멘트처럼 굳어 버린 마르틴이
웃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

”

활동 감정의 색깔

회색 아이였던 마르틴은 감정을 되찾고 나서 색깔도 되찾게 되었어요.
웃음을 터뜨리고, 엉엉 울고, 소리를 지르며 여러 가지 색깔을 갖게 됐지요.
감정에도 색깔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감정의 색깔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각 감정에 색을 칠해 봅시다.

(기쁨)



(화남)



(우울)



(슬픔)



()



()

활동2 내 안의 회색 아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통 회색이었던 마르틴은 마음속까지 온통 회색빛인 아이였죠.

처음 학교에 가던 날도 울지 않았고, 재미있는 일에도 시큰둥했어요.

화산이 폭발하는 장면을 봐도 “에이 시시해.”라며 눈 하나 깜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마르틴처럼 마음이 온통 회색인 '회색 아이'였던 때가 있나요?

딱 하루였을 수도 있고 마르틴처럼 긴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겠지요.

친구들과 함께 '내 안의 회색 아이'에 대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언제였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점에서 마르틴과 비슷했는지 등등)



활동3 아주 커다란 감정

우리는 살면서 가끔 아주 커다란 감정을 마주치게 됩니다.
이런 감정은 파도처럼 밀려와서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을 수도 있어요.
책 속의 마르틴이 그런 경험을 했지요. 이에 대해 아래의 질문을 읽고 답해 봅시다.

- 마르틴이 색깔을 되찾게 된 사건을 기억하나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써 봅시다.

- 여러분도 이처럼 자신을 변화시키는 '아주 커다란 감정'을 느끼게 한 사건이 있나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뒤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써 봅시다.

활동4 영원한 것은 없어

어른들은 처음에, 회색 아이 마르틴이 멋진 피부색으로 변하는 것은 힘들 거라고 말했어요. 평생 회색으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책에서 발췌한 다음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해 봅시다.

마르틴은 영원히 회색 아이로 살아야만 할 것 같았어요.
몸과 마음 모두 말이에요.
엄마와 아빠는 어른이 된 마르틴의 모습을 그려 보았어요.
회색 사무실에서 회색 양복을 입고 회색 넥타이를 맨 채
회색 꼬마 인형을 온 세상에 팔고 있을 것만 같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회색도 그렇지요.

- 색이 변하는 것들을 찾아봅시다. 계절에 따라, 시간에 따라, 자라남에 따라서요. 무엇이, 어떤 이유로, 어떤 색으로 변하나요?

-
-
-
-

- 마르틴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오래오래 갈 것 같았던 어떤 감정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거나 다른 감정으로 변화한 경험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써 봅시다.

활동5**비슷하지만 다른 이름**

이 중에 '회색'은 어떤 색일까요? 다 다른 색이지만 이름은 모두 다 회색입니다.

이처럼 회색 안에는 다시 여러 개의 다른 회색이 있습니다.

감정도 마찬가지로요. 똑같다고 생각되는 감정도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수많은 감정을 단어 몇 개로만 표현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럴테면 '짜증나', '좋아', '화나' 같은 단어들로요.

자신의 감정을 잘 들여다보세요. 조금씩 다르다는 걸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감정을 다양한 단어로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아래 있는 단어표에서 다섯 개 이상의 단어를 골라 오늘 하루 여러분의 감정을 표현해 봅시다.

흐뭇하다	불안하다	불쾌하다	억울하다
두근거리다	반갑다	기쁘다	답답하다
스스스하다	몽글하다	상쾌하다	행복하다
신나다	설레다	안쓰럽다	울적하다
편안하다	창피하다	평화롭다	유쾌하다
즐겁다	자랑스럽다	고맙다	뿌듯하다
신기하다	두렵다	놀라다	벅차다
후련하다	화나다	허무하다	감동하다

